

분열왕국, 두 갈래의 왕

* 10/11(월) 열왕기상 ⑥ 15-18장

통일왕국	분열왕국	
남유다 / 북이스라엘 12-22장		
<p>두 왕, 두 왕국 12:1-24</p> <p>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2:25-14:20</p> <p>유다 왕 르호보암 14:21-31</p>	<p>▶ 유다 왕 아비암 15:1-8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악한 왕 / 3년 통치·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음 <p>▶ 유다 왕 아사 15:9-24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다윗의 길(산당 예외) / 41년 통치 <p>▶ 이스라엘 왕 나답 15:25-3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여로보암의 길 / 2년 통치· 여로보암 왕조 끝 <p>▶ 이스라엘 왕 바아사 15:32-16:7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여로보암의 길 / 24년 통치· 바아사 왕조 시작 <p>▶ 이스라엘 왕 엘라 16:8-14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악한 왕 / 2년 통치· 바아사 왕조 끝 <p>▶ 이스라엘 왕 시므리 16:15-20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여로보암의 길 / 7일 통치·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음 <p>▶ 이스라엘 왕 오므리 16:21-28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여로보암의 모든 길 / 12년 통치· 오므리 왕조 시작	<p>▶ 이스라엘 왕 아합 16:29-22:40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악한 왕 / 22년 통치· 여로보암의 죄 + 바알, 아세라 숭배· 아합의 아내 이세벨· 엘리야의 등장 / 가뭄 / 까마귀· 사르밧 여인 이야기· 엘리야 vs. 바알의 선지자 450명· 사십 주 사십 야, 동행(19:8)· 엘리야와 여호와· 바알을 섬기지 않은 7,000명 (19:18)· 엘리사의 등장· 아합과 아람의 전쟁· 나봇의 포도원· 왕의 갑옷 술기, 아합의 끝 <p>유다 왕 여호사밧 22:41-50</p> <p>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22:51-53</p>
<p>참고도서</p> <p>100주년기념 성서주석</p> <p>두란노 HOW주석</p> <p>성서유니온 열왕기</p> <p>통성경 길라잡이</p>		

Before 줄치며 읽기

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
하나님을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내가 걷고 있는
이 길의 끝에
무엇이 있습니까?

• 다윗의 길 vs. 여로보암의 길

<다윗>이 기준입니다(15:3).
다윗의 도(道)를 걷지 않음에도,
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
계속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십니다.
다윗언약 덕분입니다(15:4).

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
예루살렘 성전 대신, 단과 벰엘로
제사 장소를 바꾸었습니다.
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어도,
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(12:28-32, 13:33-34).
*이스라엘의 축제에,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게 했습니다.
악한 '여로보암의 길'입니다.

*유월절, 칠칠절, 초막절

남유다는 ‘다윗의 길’과 ‘여로보암의 길’을
왔다리 갔다리, 왕을 따라 오락가락 합니다.
20명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, 히스기야, 요시아와 같이,
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(15:14, 새번역).

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,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웁니다.
22년 동안 통치하며, 북이스라엘 땅을 최악의 ‘우상숭배지’로 만들었습니다(16:30-33).

오므리 왕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, 예후 왕조에 아모스와 호세아가
‘다윗의 길’로 유턴을 시도했으나,
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, 19명의 왕들이 모두 ‘여로보암의 길’로만 직진했습니다.

● 사람의 길 vs. 여호와와의 길

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, 그 원인이 담겨있습니다.
구약의 전쟁은 ‘신들의 전쟁’입니다. 그 전쟁에서 졌고,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.
‘하나님이 약하다’는 오해를 받더라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,
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.

하나님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. 이스라엘의 ‘죄’ 때문입니다.
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. ‘그러나’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‘은혜’는 여전합니다(삼하 7:16).

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.
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.
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,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.
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(가지 않은 길, 로버트 프로스트).

분열왕국의 모든 왕들은 두 갈래의 길을 걸었습니다.
소수는 선한 왕도(王道)를 걸었고, 대다수는 악한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.

나의 앞에 ‘두 갈래의 길’이 놓여있습니다.
눈물을 꼭 참고 주먹을 꼭 쥔 채,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.
선택은 나의 몫입니다. 나의 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?
하나는 멸망의 길이요,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.

“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.
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,
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.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, 너희는 속지 마라.
생명,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
(마 7:13-14, 메시지성경).”